

# 디스플레이, 2015년에도 성장 난망

패널 침체에 중국기업 대규모 투자로 ... 파운드리 · 낸드 · D램 호조

세계 반도체 시장이 모바일기기 성장에 힘입어 연평균 10-20%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강인두 어플라이드머티어리얼즈코리아 대표는 “2014년에는 파운드리(Foundry), 낸드플래시(Nand Flash), D램 등이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시장 성장 전망에 맞추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설비투자도 확대돼 반도체 설비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3년 가격이 급등한 PC용 D램은 제한적인 공급으로 2014년 하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반면, 디스플레이 패널(Display Panel) 시장은 2013년 대형 설비투자가 없이 모바일용 패널 수요와 TV의 대형화가 지속되고 있어 2014년에도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2015년부터는 BOE, 차이나스타, CEC판다 등 중국의 디스플레이 생산기업들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추진하고 있어 가격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11/27>